

어리석게도 살아보자!

세상을 살면서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적당히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너무 밝게만 살면 피곤하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감아주면 편할 때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적당히 넘어가며 살라는 말은 아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정의로운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평범함 삶에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살아 보자는 얘기다.

동문 행사 축사에서 대학 학장님 말씀이 생각난다.

“우리 축산인들은 어리숙 하면서 남이 싫어하는 분 냄새 맡으며, 자기 할 일은 묵묵히 다 하면서 소처럼 살아간다”

소를 생각하면 아마 이런 단어들 생각이 난다. 어리석음, 충직함, 의로움, 성실함, 용맹함, 든직함 등 한 분야에서 누가 뭐라 해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며, 어리석으면서 자기 생각이 깊게 살아간다는 축산인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거짓말 시키면 나쁜 거짓말이 아닌 이상 맞장구도 쳐주고 재미있게 들어주자. 상대방이 뭐라 해도 조금 참고 들어주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상대는 나중에 인정해준다.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들어 주었으니 오히려 미안해하지 않을까? 부부가 살면서 배우자의 말에 속아주고 겨주는 것이 편할 때가 있듯이, 우기고 이겨봐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언쟁과 싸움으로 진행될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연극이라고 한다. 사람이 일부러 명칭한 체 하기도 어렵고 특히 똑똑한 사람은 더욱 어렵다. 어느 책에서



김 의 겸

양계마이스터
/본지 편집위원

중국인의 바보 처세술을 주장하는 글귀가 생각한다. “어리석기란 어렵다. 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어리석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총명함에서부터 어리석어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마음은 편해지며, 뜻하지 않고 있노라면 후에 복으로서 보답이 온다” 누구와 언쟁을 하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너무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참으면 나중에 복이 온다는 말이다.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다”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너무 잘난 체하면 손가락 질 받게 마련이며,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는 체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가기 때문에 나서지 말라는 말 아닌가?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지 못하며, 사람이 너무 똑똑하거나 완벽하면 곁에 친구가 없다는 말도 있다. 이 세상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지나치게 행동이 곧고 옳으며, 너무 따지거나 계산적인 사람에게는 접근하기가 어려워 어울리는 사람이 적게 마련이다. 그런데 옳은 말 하는 것과 따지는 것은 구분을 하기 바란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더욱 선진국으로 한 걸음 다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깨끗한 사람의 문제 중 하나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의 물을 더럽힐까봐 어울리기를 꺼려한다. 옳



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옳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위하여, 이해심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나 예상치 못한 잘못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나아가면서 매우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과 실수도 저지룰 수 있기 때문에, 늘 옆에서 타 이르고 돌봐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실수와 잘못에 대한 이해와 용서도 필요하다. 남의 실수를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기란 어렵고 두렵기도 하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나라 여건을 살펴보자. 세계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고 약 74억명의 인구가 있다고 한다. 그중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 회원국들이 그 래도 잘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 29번째로 정회원국으로 가입 했으며, 최근 삶의 질 조사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보다 7단계 하락한 47위를 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

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별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2,113시간 일을 하나 경제성장률은 104위에 불과하다. 자살율은 세계 3위 OECD국가에서는 1위다. 그리고 국민소득 27,195불로 세계 32위 국가에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못느끼는 증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객관적인 풍요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정말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행복에 대한 자기 생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느낀다. 만약 많은 소유가 행복으로 생각 한다면, 그 소유가 없어지면 불행해진다.

행복은 내 느낌이기 때문에 소유욕은 끝이 없

어 결코 만족을 못 느껴 행복해질 수가 없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기준에 충족 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한다.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도 말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욕심이 없을 때, 행복은 찾아오기 마련이며, 모든 화의 근원은 욕심이 많을 때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모든 것을 다 갖추고 행복을 누리려면 너무 과한 욕심이다. 모자란 듯 어리석게 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행복은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결국 어리석게 사는 법은 욕심을 내려놓고, 넓은 마음으로 남을 배려와 이해 용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계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

전 화 : (02)461-7887(주·야)
휴대폰 : 010-8934-6887